

장수, NFC 후보지 2차 심사 통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전북권 유일... 4월까지 7개 도시 현장실사 거쳐 최종 선정

장수군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NFC) 후보지 2차 심사를 통과했다. 장수군은 지난 18일 서울(여의도)에서 1차 서류심사 통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위원회 2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에 참가, 장영수 군수가 발표자로 나서 장수군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장수군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NFC) 후보지 2차 심사를 통과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 2차 심사에서 ▲운영주체의 역량, ▲지원계획의 적합성, ▲부지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장수군은 경북 경주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예천군, 전북 장수군, 경기 용인시, 경기 김포시, 경기 여주시, 충남 천안시 등 7개 도시와 함께 2차 후보도시로 선정됐으며 전북권에서는 유일한 지역이다.

2차 심사를 마친 선정위는 4월까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하나로 뭉친 군민들의 열원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최종 유치 결과 때까지 최선을 다 하

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 도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는 파주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의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장수군은 제안 부지 총 42만 7,823㎡의 부지확보 및 저렴한 매입비, 폭염과 열대해 없는 고지대 청정 환경 여건, 대상지 주변 인

프라와 연계한 나뭇길조트 및 10km 승마로드, 와룡휴양림, 승마체험장 등을 활용한 산악 체력훈련 가능, 그린장수 치유의 숲 및 온천욕 등 선수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의 최적 환경,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명분과 당위성 확보, 도로교통 발달 등을 강점으로 대한민국 축구센터 최적지로 부각시키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도 무주답게

윤여일 부군수 일행 서울, 경기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무주군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이 활기를 띠고 있다. 무주군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60여 원을 투입해 무주읍 전통공예테마파크 일원에 복합문화 도서관(연면적 1,500㎡, 지상 3층)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20년 문체부 심사를 비롯한 국비확보와 '21년 착공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을 마친 무주군은 도서관을 시대 흐름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19일부터 1박 2일간 대전·강원·서울·경기권의 우수 도서관(서점, 미술관) 시설을 벤치마킹한다.

이번 방문길에는 윤여일 부군수와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동행해 19일 대전 '이응노 미술관'과 원주의 '뮤지엄

산', 경기도 파주시 '지혜의 숲'을 견학하고 20일에는 파주 '비메스 아트 뮤지엄'과 '명필름아트센터', 그리고 서울에 소재해 있는 '삼성블루스퀘어 북파크'와 '사운즈 한남 내스팅북스',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둘러볼 예정이다. 일행들은 이들 시설에서 △이동편의를 비롯한 △주변 환경과의 어우러짐, △시설별 테마, △공간에 따른 도서관 배치 상황, △도서관 별로 운영 중인 문화 활동 및 체험사예 등을 집중 벤치마킹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전통시장에서 점심 먹는 날' 운영

장수군은 19일 전통시장 생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위해 '전통시장에서 점심 먹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에서 점심 먹는 날'은 군청 소속 직원들이 매월 1회 이상 부서별 출장이나 간담회, 구내식당 휴무일 등을 이용해 전통시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것으로, 장수시장 8곳, 장계시장 5곳,

산서시장 2곳, 시동강 천변공원 2곳 등 음식점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에서 점심 먹는 날 운영을 통해 군은 지역 시장 이용 생활화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수사랑상품권 사용 및 판매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제74회 식목일을 기념해 19일 오전 9시부터 진안시장 광장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가졌다.

진안군,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성황

대추·사과나무 등 총 2,000주 식재 요령 홍보

진안군은 제74회 식목일을 기념해 19일 오전 9시부터 진안시장 광장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가졌다.

군은 봄철 나무심기 좋은 계절을 맞아 가정 및 자투리땅에 유실수를 식재하고 가꿀 수 있도록 무상으로 대추나무 1,300주와 사과나무 700주 등 총 2,000주를 나누어주고 식재 요령을 홍보했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또한 진안을 불곡리 공동마을에 사는 정남규(85)씨가 정성껏 기른 포도나무 150여 본을 무상 기증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다.

황상국 산림과장은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나무심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무와 숲이 주는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군, 보훈수당 지급대상 확대 기존 5만원 → 8만원으로 인상

무주군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는 지난 2월 21일 개정됐으며 시행일인 3월 15일부터는 전상·공상 군경 1~6급의 국가유공자(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보훈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액도 기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훈수당은 신규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사망 시 그 배우자는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과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인 읍·면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존대상자는 3월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보훈수당을 수령하게 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김성욱 희망복지팀장은 "보훈수당 조례 개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게 됐다"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자긍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7개 보훈단체에 보조금 1억1,900만원, 보훈수당 4억7,700만원을 편성했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훈수당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억8,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돌발해충 월동난 예찰 강화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월동난 조사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갈색날개매미충'은 농작물 1년생 가지에 산란해 어린 가지 고사, 약충과 성충은 가지와 잎에 붙어 생장 방해, 그을음병 유발 등 작물에 피해를 입힌다.

최근 이상기변과 국제교역 확대, 농업환경 변화 등으로 돌발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된 이번 조사는 관내 7개 읍·면에서 현지 예찰로 실시됐다. 군은 월동난 조사를 통해 수립된 결과를 농림지 협업 공동방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며 돌발해충의 확산방지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정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상분석과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약충기와 산란기에 중점방제기간을 정해 돌발해충에 대한 사전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병해충 방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350-28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지적재조사사업 드론 띄운다

사업지구 1278필지 추진

진안군은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하고 스마트한 지적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2019년 사업지구인 진안읍 군상1지구·월단양지구, 용담면 회룡지구 1,278필지 43만5,767㎡에 대해 드론을 이용 항공 촬영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접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22일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았다.

지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3개 사업지구에 대한 드론 촬영을 마쳤

으며, 3월말까지 영상 자료를 납품받아 4월부터 진행되는 지적재조사 측량 관련 주민설명회,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현황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의 분석 조사 및 경계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부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지적경계를 쉽게 확인하는 등 토지소유자 간 경계결정을 협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문의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430-2263,2264)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